



## 여성낙농인 선진지 연수교육을 다녀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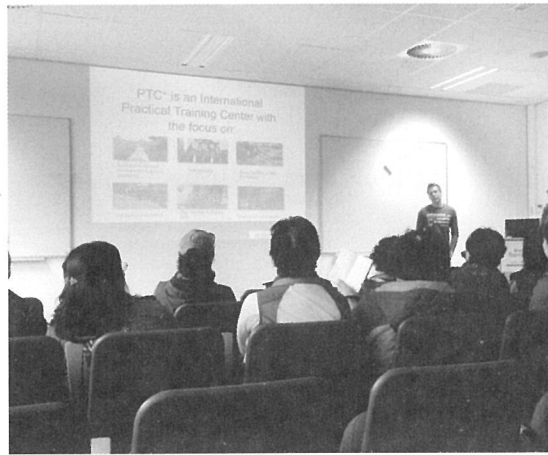
정영필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주임

### 네덜란드로의 첫 도착

16시간 가량의 비행을 거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에 도착했다. 우리와 비슷한 10월 하순의 늦가을 초입이지만 네덜란드의 늦가을은 한층 더 추웠다. 호텔에 도착해서 주변을 한번 둘러보았는데 늦가을의 쌀쌀함과 건물 몇 채, 길 옆으로 난 가로수가 전부인 거리였지만 괜스레 운치있게 느껴졌다. 첫 날은 시차가 적응이 되지 않아 새벽 2시부터

1시간 간격으로 계속 했던 것 같다.

둘째날 아침, 버스를 타고 암스테르담 인근의 교육기관 PTC+로 이동했다. 신선했던 점은 이 PTC+는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원과 같은 개념의 교육기관이었는데 정부주도가 아닌 축산업 종사자들 스스로가 실무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설립한 기관이라는 점이었다. 좁은 국토와 척박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사고방식이 교육분야에서도 발휘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곳에서는 본 교육기관의 설립취지와 현황, 그리고 네덜란드 낙농업에 대한 개관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좁은 면적에서 가족경영 중심의 낙농업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와도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육이 끝나고 PTC+ 인근에 있는 Nieve Bakelaan 목장을 방문했는데 일부 초지에 방목하는 젖소들을 제외하면 우리의 목장과도 비슷한 풍경이었다.

##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스위스

연수 첫 이틀간을 네덜란드에서 바쁘게 보낸 후 10월 29일, 스위스 제네바로 향했다. 말로만 듣던 에멘탈 치즈공장과 융프라우를 일정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연수대상 국가중에 가장 큰 기대를 하고 갔던 나라였던 것 같다.

이른 아침, 먼저 에멘탈 지역에 있는 치즈공장을 견학했다. 에멘탈로 가는 길은 좁고 구불구불한 산길의 연속이었다. 처음 도착한 제네바가 비교적 세련된 느낌을 주었다면 이곳은 정반대로 동화속의 마을처럼 구불구불한 산길을 지나면 저 멀리 장관과도 같은 초원이 펼쳐지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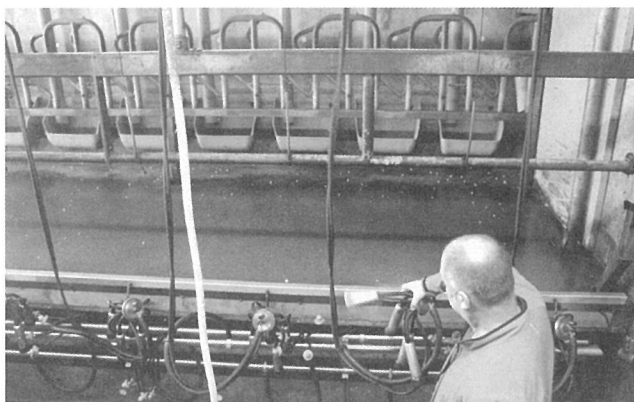
험준한 산길을 돌아 에멘탈 치즈공장에 도착했다. 이 곳에서는 매일 25개 농가에서 원



유를 공급받고 있으며 자체 원유 검증을 통해 지방은 대부분 제거하여 5,000ℓ의 원유에 3%의 지방만 함유한 채로 에멘탈 치즈제조에 들어간다. 공장 내부에는 보관단계 및 온도에 따라 여러개의 보관실이 있었는데 이 곳에서 3년여간 숙성시킨 치즈는 kg당 우리 돈으로 28,000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었다. 100년에 가까운 역사에 걸맞게 생산 및 보관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일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도 자부심과 행복함이 묻어나오는 것 같았다.

## 목장 겸 발전소, 독일의 바이덴 호프목장

스위스에서 짧지만 알찬 시간을 마치고 버스로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로 이동했다. 이 곳에서 하루를 묵은 후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이동했는데 버스로 국경을 넘는 것은 처음이었지만 특별히 신기하지는 않았다. 스위스나 네덜란드가 아기자기하고 목가적인 분



위기였다면 독일은 길도 넓고 건물들도 웅장한 느낌을 주었다.

연수의 마지막 국가인 독일에서 방문한 곳은 프랑크푸르트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바이덴 호프 목장이었다. 가장 신기했던 점은 바로 바이오 가스를 생산한다는 점이었는데, 이 곳 목장의 수입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한다. 대체에너지 산업분야가 유망한 만큼, 언젠가는 목장에서 나온 부산물을 통해 이렇게 직접 연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면 목장의 부가가치는 물론 사회적인 역할 또한 지금보다 훨씬 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맺음말

선진국의 낙농현장을 직접 보고 겪으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일부 초원에서 방목하는 젖소들을 제외하면 목장 내부의 시설이나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우리와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과 낙농선진국이라도 낙농산업의 문제점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낙농선진국에 견주는 목장 시설의 선진화를 이룩하고 있다는 점과, 세계 최고 수준의 우유를 생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낙농업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개인적으로도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많이 부족한 제게 귀중한 연수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과, 직원으로서 부족한 점을 격려해주시고 보듬어 주시며 연수에 참여해 주신 여성 낙농인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